



光武二年三月 八日 農商工部認可

皇城新聞

每日刊行 第一卷 第六號

論說

○法律이란 거시二가
 有스니 一은 暴虐이오
 一은 公平이라 暴虐호
 法律은 百年前에 世界
 各國執政者 一 天理를
 不遵호고 但 貪權樂勢
 호야 嚴刑峻法으로 自
 己 懲懲만 充호든 巴이
 오 公平호 法律은 近來
 에 仁人君子이 有호야
 人民을 虐待호는 滅亡
 을 自取호이라 호야이
 에 民心을 體察호고 慈
 愛를 崇尙호야 其國을
 富強에 致호니 自後로
 各國이 互相 衍行호야
 萬國通行律例를 定호
 야 此國人이 彼國에 在
 하면 彼國이 轄治호고
 彼國人이 此國에 在호
 야도 또호 此國의 約束
 을 受호는 二이 無他
 다 法律이 同호고 規制
 가 無異호야 彼我國이
 서로 相信相孚호는 巴

이라 이럼으로 萬國公法이 有호고 萬國公
 會를 設호야 遵行不替호며 此法을 不知호
 는 國은 未開라 野蠻이라 호야 公會에 參
 與치 못호니 此等國은 自國人民이 困苦호
 썩야 니라 他國事勢를 全昧호야 邊釁을 易
 開호고 其國을 易亡호는 니 東洋으로 言
 호야도 日本은 事勢히 西法을 遵行호야 乙
 未年의 他國과 換約時에 萬國公會에 參與
 호기를 得호야호고 淸國은 至今까지 舊法을
 不改호고 明國의 苛制를 因用호야 百姓의
 疾苦는 不問호고 國家의 興亡을 不知호며
 但曰 大國이니 中華니 稱호고 外國은 夷狄
 이라 禽獸라 호고 驕傲愚頑호야 自過를 不
 改호야 到處에 慢侮를 受호고 至今까지 世界
 形便을 不察호며 日本의 讎怨을 報호다 稱
 호고 다른 나라에 地을 借호며 港을 與호야
 自削自弱호고 虎狼을 引호야 自衛호며 人
 民을 剝削호야 賣官鬻爵호는 舊習과 文具
 를 崇尙호는 惡態를 改良치 못호니 且 過幾
 年하면 疆土四分五裂호야 隣邦까지 貽害
 호지니 이 頑固를 自恃호고 西法을 不行
 호는 弊端이라 호지 慨然치 아니리오 然而
 我國은 淸國을 慕호야 每事를 効則호고 外
 國은 오랑키라 호기 本國은 小中華라 호기
 學問은 漢唐宋明이 第一이라 호야 一切 苛
 虐호고 傲慢호는 事爲가 淸國을 不及호기 惟
 恐호야 호는 至於 分野가 同호니 我國은 不得
 淸國과 如호다 호며 政府諸公이 是 見

하고 想호는 거시 前明의 苛虐호는 事蹟이나
 宋儒의 性理호는 이나 此外에 百姓을 壓制호
 經綸이오 人民을 開明호니 外國事情을 通
 曉호거니 國家을 保全호는 事業은 一毫도 念
 及치 아니호고 法令이 無常호야 外新內舊
 호는 主意를 難測호는 變夕改에 恰
 然히 孩兒의 遊戲와 如호야 百姓이 適從호
 바를 不知호니 國勢의 岌岌호는 盲人이 瞎
 馬를 騎호고 黑夜에 干丈深淵을 當호미 兼
 호야 虎嘯猿啼가 사를 驚怖케 호지라 호
 지 深謀遠慮치 아니호는 고 或曰 現今에 秉
 軸大臣은 다 當世大才라 호자 法을 改正
 호야 暴虐호는 舊習을 盡祛호고 公平호는 新制
 를 遵行호야 不過幾年이면 我國도 萬國公
 會에 參與호리라 호나 吾는 疑信相半호야
 確言키 難호노라

官報

●九月九日
 ●(宮廷錄事) ○詔曰 命宮內府特進官沈
 舜澤 爲太醫院都提調、七月十五日 ○
 前成均館教授李用龜稱寃疏 批旨省疏
 具悉識見如此爾之所學可知也、九月七
 日
 ●叙任及辭令 ○命太醫院都提調叙勅任
 一等 宮內府特進官沈舜澤、七月十五日
 ○依願免本官 ○江原道觀察府主事鄭秉